

남이 하라 북이 할라니 ?

보완2

**승산, 拉孟-라모라고 하는데 松山 이 원명이라는군요. 좀더 확인을 하지요.

**피해자? 증인? 나? 어느 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나중에 피해자 증인 어느쪽으로도 정해서 바꾸기로 고칠 것

하상숙과 김복동할머니 부분이 들어와서 마음이 급해 일단 올립니다만 조금 더 통일적으로,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까지는 정리 다시 하지요.

증인 박영심

박영심: 1921생인 피해자 박영심은 평양 근교에서 17살 때(1938년 3월) 군 병원에 일 자리가 있다는 일본 순사에게 연행되어 15명의 처녀들과 함께 평양역을 출발하여 난징(南京)에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됐다. 난징의 3층으로 된 벽돌집 금수로 위안소였다. 여기서 우다마루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죽 일려고 하는 위협 하에서 위안부로 강요되었다. 다른 위안부 중에서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디론가 실려가거나 강물에 처넣어 죽이곤 하였다. 이곳에서 약 3년간 있었다.

당시 남경에는 남경대학살 대강간을 행한 중지나방면군(사령관:마쓰이松井石根)이 1938년 2월 중지나파견군으로 편성되어 주둔하였고, 1939년 9월에는 이를 폐지하고 중국주둔의 일본군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西尾壽造대장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지나파견군사령부가 남경에 창설되었다. 畑俊六, 山田乙三, 西尾壽造은 증인 박영심이 3년여 있었던 남경지역 책임자인 중지나파견군사령관 및 지나파견군총사령관이었다.

3년 이상을 지낸 후 일본군 병사 2명의 호송을 받으면서 상하이(上海)로 가서 싱가폴을 거쳐 미얀마의 라슈拉孟?의 [잇가쿠루?]위안소에 끌려갔다. 여기서는 2년간 있었다, 여기서는 와카하루(若春)라는 예명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미얀마는 1942년 1월말에 寺内壽一을 사령관으로 한 남방군 예하 제 15군(사령관 飯田祥二郎중장)의 제 55사단, 제33사단이 육로로 침입하여 3월 8일 랑군이 점령되었다. 이어서 제 56사단, 제18사단도 해로로 랑군에 도착하여 5월 18일 제 15군에 의해 전 미얀마가 점령되었다.

제 56사단은 1942년 3월 랑군에 상륙하여 라시오, 미트키나로 북진하여 5월에는 운남성 騰越까지 침공하여 拉孟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 후 폐전까지 수개소에 분산 주둔하였다. 피해자 박영심은 라시오에서 다시 1944년 拉孟으로 보내졌는데 이때 제56사단에 배속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43년 3월 河辺正三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얀마 방면군이 신설되어져 제56사단(장 松山祐三)은 피고인 牟田口廉也를 사령관으로 하는 제15군 지휘하에 들어갔다. 1944년 4월 피고인 本多政材(-폐전)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33군의 신설과 함께 제 56사단은 그 예하로 재편성되었다.

박영심은 1944년 拉孟의 위안소에 가게 되었을 무렵의 拉孟수비대는 제 56사단의 보병 제 113연대였다. 이 拉孟수비대는 중국 雲南 원정군과 싸워 1944년 9월7일 전원 전사하였다. 그 수일전에 조선인 위안부들과 함께 방공호에 숨었던 피해자 박영심은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져 昆明 포로수용소로 보내어졌다. 그때 조선인 위안부 생존자는 4명뿐이었다. 박영심은 昆明포로수용소에 7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1946년 2월 인천을

거쳐 귀향했다.

참고자료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깃땀한 인생의 웨침』, 평양, 1995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從軍慰安婦と十五年戦争』, 明石書店, 1993

일본기소장에서 참고

강정숙

김복동

(1) 징집당시 상황

증인은 1926년 5월 1일 경남 양산에서 6자매의 넷째딸로 태어났다. 어릴적 아버지가 남의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논을 다 잃고 아버지는 이것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가 여섯자매를 키우셨다. 증인이 만15세가 되던 해인 1941년, 어머니의 권유로 양산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집에서 지내던 어느날이었다. 동네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인 남자와 함께 집으로 왔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데이신타이로 딸을 보내야 하니 내놓으세요”라고 했다.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보내야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아주머니는 반역자가 되어 여기서 살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데이신타이가 뭐예요?”라고 묻자,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요. 3년만 일하면 되고, 그 전에라도 시집가게 되었다고 고향에서 연락을 하면 보내주니 안심하고 보내시오. 3년이 지나도 더 돈을 벌기 원한다면 더 일해도 되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서류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나는 안 갈수가 없었다.

(2) 첫 위안소까지의 인솔과정.

동네 구장과 반장과 함께 왔던 일본남자가 증인을 버스에 태워 부산에 데리고 가서 부두에 있는 창고에 집어넣었다. 창고 앞에는 군인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고 그곳엔 이미 20명 정도의 조선처녀들이 와 있었다. 대구, 진주, 김해, 의령 등에서 끌려온 처녀들이었다. 나이는 증인보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혼인전이었다. 그곳서 끌려온 처녀들을 감시하며 통역을 맡고 있던 사람은 40살가량의 조선남자였는데 그는 조선인 부모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였다. 다른 처녀들은 이 조선남자가 징집해 온 모양이었다. 저녁때 시모노세키행 배를 탔는데, 인솔자는 증인을 데려온 일본남자와 통역을 맡고 있던 조선남자였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약 일주일동안을 부두 창고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 일주일후 화물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대만이였다. 배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농장같은 곳이었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그녀들을 감시하였는데 일본경찰관이라고 했다. 한달이상을 그곳서 지낸후 배를 타고 광둥에 도착하였다. 배를 타기전에 칼라가 있고 몸빼바지로 된 국방색 군복으로 갈아 입었다. 증인이 끌려간 첫 위안소는 광둥이었다.

(3) 성병검사

(3-1) 위안소로 배치되기 전에

광동에서 내려 포장이 된 군인트럭을 타고 곧장 위생병원 같은 곳으로 갔다. 인솔자는 조선을 떠나면서부터 데리고 갔던 일본사람과 조선남자였다. 둘은 높은 사람에게 서류를 냈고, 끌려간 여성들에게겐 무조건 “하이, 하이(예, 예)하고 대답하라고 시켰다. 어느 방인가에 들어가서 일본 군의관이 검사를 하는데, 그는 아랫도리 옷을 전부 벗고 나무판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 생전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어 본 적이 없는 증인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다. 그래서 나무판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으나 군의관은 강제로 내 옷을 벗기고 아래를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후 한참을 걸어서 어떤 건물로 갔다. 그 건물이 위안소였다.

(3-2) 위안소에서

성병검사는 일주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군의관이 숙소로 와서 나무판을 만들어 놓곤 했다.

(3-3) 606호 주사

606호 주사는 성병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한달에 몇번씩 놓았다. 이 주사를 맞으면 피가 좋아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질어질했다.

(4) 위안소의 성병예방시설 및 실태

방뒤쪽으로 문이 나있어 뒤로 나오면 밭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 윗쪽에서는 링거줄 같이 생긴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곳으로 붉은 색 소독물이 나온다. 수시로 그것을 받아 밭을 씻었다. 군인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씻을 시간이 없어 저녁에 겨우 한 번 씻었다. 위안소 건물 바깥에 목욕탕이 있어서 저녁에 목욕을 했다.

(5) 위안부의 건강관리는 군인을 위한 것

밧이 붓거나 아프면 군의관이 치료해주고 나을동안 며칠은 군인을 받지 못하게 했다. 생리 때는 군인을 받지 않았다. 생리때는 관리인이 문앞에 빨간 것을 붙여놓고 쉬게 했다.

(6) 광동 위안소

(6-1) 위안소 건물

증인과 함께 징집된 20명이 광동의 위안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쯤 와 있어 전부 30명이 함께 있게 된 셈이었다. 중국인 여자 한명을 빼면 전부 조선인 여성이었다. 건물 복판에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방이 주욱 있었고, 방은 30개는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각기 방을 하나씩 배치받았다. 방과 방사이엔 합판으로 된 칸으로 되어 있어서 옆방에서 나는 숨소리까지 다 들렸다. 방은 아주 작았고 시멘트바닥에 나무로 짠 침대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각방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고 그 밑에 위안부 이름도 붙어 있었다. 증인은 “가네무라 후유코”라고 불리기도 했고 “요시코”라고도 했다. 모두 군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이동한 곳에서 여자들이 늘어나 같은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가장 많이 불리운 이름은 “가네무라 후유코”였다.

(6-2) 위안소내 생활과 외출

생활은 전부 위안소 건물내에서 이루어졌다. 밖에는 나갈 수가 없었다. 인솔자인 일본사람과 조선남자가 사복을 입고 문 앞에서 우리를 감시했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을때는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나갔다.

(6-3) 위안소 도착한 날의 상황과 자살기도

위안소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성병검사를 했던 군의관이 방으로 들어왔다. 무서워서 뒤걸으

로 도망쳐 숨었으나 그가 쫓아와 양볼을 엄청난 힘으로 때렸다. 얼굴전체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맞았다. 그는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였고 말을 안들을 수 없었다. 반항해봐야 나만 손해다 싶어 시키는대로 하자고 맘을 먹었다. 그러나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아래에서 피가 나오고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통통 부어올랐다. 파가워서 오줌도 낼 수가 없었다. 이튿날 다른 두명과 죽자고 얘기했다. 위안소에서 청소를 해주던 중국남자에게 1원을 주면서 손짓 몸짓으로 약을 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가져다 준 것은 독약이 아니라 빼갈이었다. 그는 술을 사달라고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셋은 술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술을 나누어마시고는 베란다에서 뺏어버렸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온 여자가 셋을 발견하고는 군인에게 신고를 해서 위생병이 와서 호스로 속을 씻어내렸다. 셋은 사흘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 깨어나니 병원이었다. 그후 속이 헤져서 석달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증인은 이일로 인해 지금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않는 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6-4) 위안소 경영형태

위안소는 군대 바깥에 있었으나 위안소는 일본군인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올 때 문앞에서 관리자에게 무슨 증명서를 내보이고 대신에 표와 샷쿠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 때마다 부산에서부터 인솔했던 조선남자인 관리인은 장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했다. 표를 모아두었다가 저녁에 관리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면 그가 기록을 했다. 그는 일본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지 않고 있었다. 표는 누르스름하고 딱딱한 화투짝의 사분지 일 크기의 종이였다. 밥과 청소는 중국사람이 했다. 이같은 진술로 보아 조선에서 증인을 징집하고 인솔했던 일본남자가 경영자로 보여지며 조선남자는 위안부를 포함하여 위안소 관리를 맡고 있었다. 증인이 있던 위안소는 “고아구락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광동서부터 가는 곳마다 같은 이름이었다. 이로보아 위안소 형태는 위안소경영자를 둔 군전속위안소였으며 위안소경영자를 통해 군이 경영을 통제 감독한 형태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안소의 이동은 군의 명령으로 위안소경영자가 위안부를 인솔하여 군이동과 함께 위안소도 이동한 경우이다.

(6-5) 위안부에 대한 지급 여하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도 몰랐다. 단지 밥 먹여주고 가끔 옷이나 화장품필요하다고 하면 사다주었다. 관리인은 전쟁이 끝나면 큰돈을 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가끔 위문품을 나눠 주기도 했다.

(6-6) 위안소내의 성행위 강요실태

보통때는 하루에 15명 정도의 군인이 왔지만 주말에는 많아 50명은 넘었던 것 같다. 토요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병들이 왔고 5시가 넘으면 헌병이 와서 조사를 하므로 사병은 남아 있지 못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장교들이 왔고 자고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밀이 붓고 잘 들어가지 않으면 군인들은 샷쿠에 연고를 발라 들어가게 했다.

(6-7) 군인들의 폭력

생리인줄 모르고 군인을 받다가 피가 비치면 군인들은 화를 내며 귀싸대기를 때리기도 했다.

위안소가 이동할 때 트럭을 타고 가다 트럭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또한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몇 달간 고생을 했다.

(6-8) 관리인의 폭력

관리인인 조선남자는 마음에 드는 위안부를 데리고 자기도 했으며 위안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욕도 했다.

(6-8) 조선어 사용금지

위안소에서는 항상 일본말을 썼다.

(7) 위안소의 이동

(7-1) 광둥에서 홍콩으로

어느날 아침 군인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짐을 다 싸가지고 타라고 했다. 트럭과 군화물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홍콩이었다. 홍콩의 위안소 실태는 광둥의 위안소와 비슷하였다. 위안소 건물은 군인들이 개인의 큰집을 빼앗아서 합판으로 칸을 막아 만든 곳을 사용하였다. 군부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집이 드문드문 있었다. 홍콩의 위안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었고 심부름하는 사람만 홍콩사람으로 바뀌었다. 그후로도 장소가 바뀔때마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현지사람으로 바뀌었다. 홍콩에선 약 석달쯤 있었다.

(7-2)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의 위안소가 있던 곳은 군부대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민가에서는 외진 곳이었다. 3층짜리 양옥집 네채를 철창으로 막아놓고 입구에 보초가 지켰다. 이전 위안소와 비슷한 환경이었고 위안소 건물은 기다랗게 지어진 집에 칸막이만 쳐져 있었다.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문 앞에 내리면 각기 흩어져 위안소 건물내로 들어갔다. 위안소 건물에서는 멀리 대포소리가 자주 들렸다. 싱가포르에서는 가끔씩 산 속 깊은 곳의 군부대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군인들이 호위하고 위안부 10명쯤 함께 갔다. 이동할때는 줄곧 포장이 쳐져있는 트럭을 타고 갔기 때문에 바깥을 내다보지 못했다. 천막 하나를 임시 위안소로 만들어놓고 천막 속을 합판으로 칸을 나누어 서너명씩 들어가도록 했다. 출장으로 간 위안소 책임자는 그 부대에 따로 있었다. 하루종일 거의 누운 상태로 군인을 받았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위안소로 돌아오곤 했다. 싱가포르에 몇달 있다가 다시 이동하였다.

(7-3) 싱가포르에서 이동후 여러지역을 전전하고서 다시 싱가포르로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바로 계속 이동하였다. 배나 트럭을 타고 하루종일 또는 며칠을 가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던 곳은 다시 싱가포르였다.

(7-4) 위안부 국적

광둥위안소에 도착했을 때 조선여성 10명이외에 중국인여성이 한명 있었고 증인과 함께 징집된 20명이 추가되어서 합30여명이 있었으나 국적은 조선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후 홍콩서부터 중국인 한명과 일본인 여자 몇 명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조선인 여자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8) 일본의 패전 당시

어느날 갑자기 위안소에 군인들이 오지않기 시작했다. 위안부들은 조선남자의 밥을 해주면서 위안소에 그대로 있었다. 한 보름쯤 지난 어느날 일본군인들이 빨간 십자가 그려져있는 차를 타고 위안소에 와서 우리를 태우고 떠났다. 이때 조선남자는 어디론가 도망가버렸다. 그때까지도 해방이 된지도 모르고 있었다. 일본군인이 데리고 간 곳은 싱가포르 주재 제10 육군병원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일본군인들은 간호훈련을 시켰다. 그외에 병원청소도 하고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헌혈을 강요당하였다.

(7)귀국

어느날 이종사촌 형부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군속으로 남양을 오게 되었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사진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주었던 것이다. 형부의 도움으로 미군수용소로 옮긴후 몇 달을 걸려서 부산에 귀향하였다. 귀국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에겐 병원에서 간호부 생활을 했다고만 말했으나 어머니의 시집가라는 성화에 못이겨 위안부생활한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증인의 고백으로 심장병을 얻었다. 어머니의 애원으로 결혼을 한

적이 있으나 자식도 못낳고 남편이 외도를 해서 결국 4년쯤뒤에 헤어졌다. 그후 재혼을 했으나 남편의 사업실패후 현재는 남편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다. (윤명숙)

하상숙 할머니

하상숙은 1928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명씩 있었다. 부모님은 엿을 만들어 팔았다. 소학교를 보내줬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했다. 소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었다. 그사이 여관을 했던 엄마는 돈이 없어 여관을 이모에게 팔았다. 그후 어머니는 예산으로 재가했다.

열두살 때 진남포로 남의 집 아기보러 간 것을 시작으로 일을 시작했다. 1년간 애기를 본 후 돌아와 공장에 다니기도 했다.

열네살 먹던(1944년) 어느날 이웃의 언니에게 놀러갔더니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돈을 벌었냐니까 일본 공장에 갔다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해에 간다면 서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가겠다고 했더니 며칠 후 조선인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일본갈래, 중국갈래 하고 묻는 남자들에게 중국으로 간다고 했다. 엄마는 만주는 멀다고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가겠다고 우겼다.

집 떠날 때가 6월 무렵이었다. 조선인 남자 두명이 나를 데리고 기차로 경성까지 와서 장충단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 줬다. 여관에는 주인부부와 먼저 온 여자들 5명이 있었다.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나중에는 여자들이 모두 40여명이 되었다. 경상도에서 온 여자들이 제일 많았다. 언니들이 거기 가면 '헤이파이(병대)'들 환송해주는 소리도 하고 창가도 하는 위문단으로 간다고 했다. 주인 부부가 기미코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 기차 안에 군인들도 있었다. 평양, 단동, 천진을 거쳐 남경까지 갔다. 천진에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하룻밤을 잤다. 남경에서 반달 쯤 있다가 배를 타고 안휘성의 무호를 거쳐 무한으로 들어갔다. 무호에서도 반달쯤 있었다. 배에 탄 민간인은 전부 조선사람뿐이었다. 군인들도 있었다.

한구에 내린 것이 1944년 12월 쯤이었다. 30분쯤 걸어서 적경리에 도착했다. 여자들이 40여명 같이 왔다. 여자들이 20명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 집 이름은 [三成樓]였다.

한구의 육군특별위안소 적경리는 이미 1938년 11월에 개설되었고 1944년 11월에는 지나파견군총사령관에 오카무라야수지(岡村寧次), 제6방면군 사령관에 오카베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이 책임자였다. 1943년 적경리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위안소 9채, 조선인이 경영하는 위안소 11채가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 130명, 조선인 위안부 150명이 있었다.

부대 이름 중에 사쿠라 부대가 기억난다.

주인부부는 평양사람이었다. 처음에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 어린애 못 낳게 하는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다. 그리고 병참위안계로 출두했는데 여자 나이가 18살이 넘어야 허가장을 내줬으므로 내 나이를 올려 18살이 되었다.

1943년 3월부터 패전까지 한국병참사령부 위안계장이었던 야마다세이키치(山田清吉)에 따르면 위안부가 새로 도착하면 주인과 함께 병참위안계로 출두했다. 이때 본인의 사진, 호적등본, 계약서, 부모의 승낙서, 경찰의 허가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와야했다. 이것으로 위안계의 하사관이 신상조서를 만들어 헌병대로 회부하였다.

위안소는 2층이었다. 적경리에 들어가서 세 번째 집이었다. 방은 모두 20개 정도로 다다

미 방이었다. 처음에 일본군 병사 세명이 들어왔다. 이후 일본인 군인만 들어왔다.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이 들어왔다. 군인이 돈을 나에게 주면 주인에게 갚다주고 삿कु와 휴지를 받았다. 돈의 액수는 중국돈 1원, 2원이었다. 주인이 장부에 기록했다.

일요일에는 군인들이 바깥에서 줄서서 기다렸다. 군인 한 사람을 받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었다. 군인 중에 두 번 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거절했더니 때린 군인도 있었다. 또 술 먹고 와서 죽인다고 위협하는 군인도 있었다. 삿कु를 안쓰겠다는 군인과 싸움을 하기도 했다. 군인들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면 주인에게 항의했고 그러면 주인은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로 찼다.

목욕탕이 있어서 한 사람과 관계하고 나면 목욕탕에서 가서 약물로 씻었다. 월요일마다 적경리 안에 있는 병원에 가서 성병검사를 받았다. 검사하기 전날 여자들끼리 오리주둥이 같이 생긴 기구로 서로 봐줬다. 병이 있으면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먼지를 솜에 묻혀서 조금 발랐다. 그러면 병이 있더라도 검사에 통과할 수 있었다. 매독에 걸린 여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606호 주사를 맞고 보름정도 지나면 나왔다.

쉬는 날도 없었고 위안소 밖으로 외출하지 못했다. 한달에 한번 적경리 철문 밖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

밥은 중국인들이 해줬는데 하루에 두끼 먹었다. 주인이 옷과 화장품을 사줬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 처음에 나를 그 집에 데려다 준 조선인 남자에게 그동안 쓴 기차값과 옷값을 주었는데 그게 내 빛이 되었다. 그걸 갚으려면 3년은 일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날 아침에 일본이 전쟁에 졌다고 옆집에 있는 일본여자들이 울고 있었다. 군인에게서 받은 돈은 쓸 수가 없어 다 버렸다. 조선 사람은 적경리로 모였다. 조선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이 몸으로 조선으로 가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으로 안간다고 했다.

중국에서 아이 셋 딸린 중국남자와 결혼해서 의붓어미 노릇을 했다. 조선국적을 유지한채 지금까지 중국 무한에서 살고 있다.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 국적문제로 수속이 어려운 모양이다.